



정읍시 내장상동, 예비 중학생 16명에 책가방 선물

정읍시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경이, 이신영)는 지난 19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관내 저소득층 예비 중학생 16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브랜드 책가방을 지원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지원은 내장상동 협의체의 신규 특화사업으로, 초등학교 시절 사용하던 가방이 작아져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구입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학생들이 3월 개학에 맞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책가방을 전달했다. 취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소방서, 순창보건의료원 스프링클러 설치 간담회

순창소방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순창보건 의료원을 방문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추진 독려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시설 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을 안내하고 기관 내 완료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소독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맞춤형 안내를 통해 소급 대상 시설의 조기 설치완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기숙사 입소 학생 소방안전교육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최근, 고창군청에서 고창군장학재단 기숙사 입소 예정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숙사 생활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119 신고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설명을 통해 신고 시 정확한 위치 전달 방법과 침착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화기 사용법 교육에서는 핀 뽑기-노출 잡기-손잡이 압착-좌우로 분사 순서를 직접 설명하며, 초기 화재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고원 행복주택 추진 유공자 감사패 수여

진안군, 농촌 정주여건 개선·인구유입 공로 인정

진안군은 지난 20일 오전 군수실에서 '진안고원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는 진안고원 행복주택 추진에 기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수상자는 △백운면 원촌마을 주명식, △성수면 작은학교살리기 지역협의체 부위원장 전옥기, △성수면 진성중학교 노희은 교장, △마령면 평산마을 이한진, △진 주천면 작은학교살리기 위원장 조수행, △덕산종합건설 현장대리인 김경태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지 확보와 주민 협의, 입주 기반 조성 등 전 과정에 걸쳐 행정과 긴밀

히 협력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행복주택과 연계한 작은학교 살리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백운면 행복주택은 12세대 48명, 성수면 행복주택은 12세대 45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세대 44명은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로 나타나 지역 인구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진안고원 행복주택은 올해 하반기 마령면 행복주택을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주천면 행복주택을 준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중산신협, 5년째 지역주민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이어가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리양노)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5년째 이어가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중산신협은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전주산돌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쌀 10kg 20포대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북지교회 선교장로회(회장 김성철)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주중산신협을 비롯한 지역 내 여러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종교·사회복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주중산신협은 쌀을, 다른 기관들은 라면과 각종 생필품을 지원해 쌀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전주중산신협은 2022년부터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인 생활 지원 방안을 모색한 결과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인 쌀 지원을 지속해왔다.

리양노 이사장은 "쌀 후원을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행사인 만큼 나눔의 가치가 더욱 크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함양오씨 금남공파 증중, 춘향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함양오씨 금남공파 증중(회장 오상용)에서 '남원 오치행 묘'의 남원시 향토유산 지정을 기념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지난 20일 장학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원 오치행 묘'는 2025년 6월 27일 남원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이번 기탁은 향토유산 지정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용 회장은 "향토유산 지정이라는 뜻깊은 계기를 맞아 그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장학기금을 기탁했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남원시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공장밀집지역 화재예방 훈련

남원소방서는 지난 20일,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밀집 산업단지의 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서장을 비롯한 예방안전팀 관계자들이 남원시 시묘길에 위치한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를 방문, 화장품 제조업 공장 등 산업단지 내 주요 시설의 소방검사 추진 지표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화재 예방 경각심을 고취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식정119안전센터 주관으로 대규모 공장 현지적응훈련이 진행, 초동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소방서, 고사포 아영장 화재 위험요인 제거 활동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고사포해수욕장 인근 아영장과 글램핑 시설에 쌓인 숲인 등 화재 예방을 위해 가연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캠핑객이 많은 시기에는 자칫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추진했다.

이번 활동에는 소방공무원 10여 명, 부안인용소방대 50여 명, 국립공원관리공단 20여 명 등 총 80여 명이 합동으로 추진했다.

최길웅 서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캠핑과 글램핑을 즐길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먼저 발견하고 제거하는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필북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